

SKY, 국가 고등교육재정 10% 과점… 대학 서열화 조장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최근 5년간 지원금액 6.5조 달해
선택과 집중, 대학간 격차 증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 필요”

이른바 ‘SKY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국가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 5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총 학생 수는 10만 3574명이다. 전국 대학의 학생 수가 244만 1120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4.24%에 해당한다. 전체 대학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는 셈이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유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부처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연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 1990억원 (10.6%) ▲2015년 1조 2734억원 (10.2%) ▲2016년 1조 3254억원 (10.57%) ▲2017년 1조 3944억원 (10.69%) ▲2018년 1조 3685억원 (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서울대 4조 1872억원 ▲고려대 1조 1170억원 ▲연세대 1조 2566억원으로 ‘SKY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가 가장 많이 지원받았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서울대는 고려대, 연세대 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높았다. 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한다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았고,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64만원으로 ‘SKY 대학’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앞섰다.

박찬대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되었던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라면서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 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 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개편된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액〉

연도	학교명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비율(%)	지원액(천원)	비율(%)
2014	서울대	27,986	1.1	807,551,519	7.1
	고려대	29,387	1.1	187,297,775	1.7
	연세대	31,061	1.2	204,318,510	1.8
	3개 대학 합계	88,434	3.4	1,199,167,804	10.6
2015	서울대	28,490	1.1	836,391,628	6.7
	고려대	29,511	1.2	208,899,508	1.7
	연세대	31,191	1.2	228,117,304	1.8
	3개 대학 합계	89,192	3.5	1,273,408,440	10.2
2016	서울대	28,630	1.14%	851,434,754	6.79%
	고려대	37,308	1.48%	219,988,701	1.75%
	연세대	39,152	1.55%	254,030,356	2.02%
	3개 대학 합계	105,090	4.17%	1,325,453,811	10.57%
2017	서울대	28,390	1.15%	861,043,749	6.60%
	고려대	37,303	1.51%	246,842,664	1.89%
	연세대	38,667	1.57%	286,545,669	2.20%
	3개 대학 합계	104,360	4.24%	1,394,432,082	10.69%
2018	서울대	28,094	1.15%	830,818,110	6.25%
	고려대	36,921	1.51%	254,036,859	1.91%
	연세대	38,559	1.58%	283,648,260	2.14%
	3개 대학 합계	103,574	4.24%	1,368,503,229	10.30%

/박찬대 의원실

서울교육청 “19일부터 초등 1학년 매일 등교”

학교생활 적응·학생성장 도움 마스크 착용 등 학교별 방역강화

서울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오는 19일부터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 문제와 학생 성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방역집중기간이 끝나는 12일부터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고, 중학교 1학년도 등교수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유·초·중·고등학교 모두 등교인원 제한을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소규모학교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300명 이하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학교 여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 범위에서도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



지난달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부진 예방을 위해 10월 12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1·2단계 상황 중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매일 등교 등 정책들을 제안했다.

/뉴시스

한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매일 등교를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완화를 기본 방향으로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교와 종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68.4%,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의 57.6%가 매일 등교에 찬성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개최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각 주요 교원단체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등교수업 확대 방안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한 방역 등 인력 지원과 현장 적용을 위한 점진적인 추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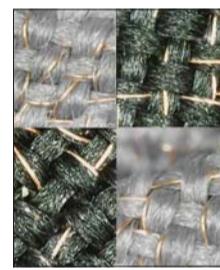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의 매일 등교와 중학교 1학년의 등교수업을 확대 실시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실천 ▲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의 안전 확보와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학교별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충실파, 구리사 원단 항바이러스 마스크 제작

김주용 교수-손용식 케이원텍스 대표

구리 50% 이상 함유 향균·소취 탁월



김주용 충실파 교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구리 특수복합사 적용 마스크’

/충실파

충실파는 김주용 유기신소재파이버 공학과 교수와 손용식 케이원텍스 대표와 구리 특수복합사를 적용한 항바이러스성 마스크(K29TEX)를 공동 개발해 이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출시한 마스크는 지난 7월 1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섬유분야 최초로 코로나19 타겟 항바이러스 성능을 인정받았다. 직경 70μm(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의 구리사를 친환경 원사와 합사해 직조한 원단을 활용했다. 향균 및 항바이러스성이 뛰어난 구리사의 최적 함량과 조직 설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는 원단으로 제작됐다.

구리는 유해박테리아 99.9%가 사멸하는 항균물질로 2008년 미국 환경보호

장 많았다.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회사 매출 규모가 줄어들어서’ (54.7%, 복수응답)가 가장 커졌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서(35.9%) ▲업계 전반적으로 침체기라서(31.3%) ▲현재 인력으로 충분해서(21.9%)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서(17.2%) 등이 있었다.

채용계획에 변동을 준 기업들은 부족한 인원을 ‘기존 인력의 업무 분담’(67.7%, 복수응답)으로 대체할 계획이었다. 이어 ▲내부 직무순환으로 인력 충원(36.4%) ▲해당 업무 축소 및 통폐합 등 조직개편(23.2%) ▲비정규직 인력 대체(10.1%) 순이었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딥러닝 기반 실내측위 기술 개발

최린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 국가기술표준원 NET신기술 인증

고려대는 최린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하 연구팀)의 딥러닝 기반 지자기 실내측위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NET 신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술은 최근 개최된 2020년 2차 신기술인증 수여식에서 대표적 신기술로 소개됐다.



지자기 실내측위 NET 신기술인증서 /고려대

NET 신기술 인증은 국내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실시된다. 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 인증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대학에서 신기술인증이 수여된 것은 최린 교수팀이 유일하며 고려대 산학협력단 단독 신기술인증은 고려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연구팀의 딥러닝 기반 지자기(지구자기) 실내측위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된

부분은 ‘신입/경력 둘다’(64.6%)가 가